광주일보사·광주전남중기청 선정 '2013년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인상'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10일 광주시 서구 중소기업청에서 '2013년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인' 7명에 대해 시상했다.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인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업인은 종합우수부문 ㈜혁신 최연호 대표·㈜엠에스 고용배 대표, 청년창업부문 매크로드㈜ 현기환 대표·키스코이에스㈜ 윤영중 대표, 수출우수부문 ㈜골드텔 이재수 대표, 고용우수부문 우주종합건설㈜ 김영태 대표, 매출우수부문 (사)화순사랑 김용문 대표 등 7명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0일 광주시 서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린 '2013 하반기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현호(왼쪽 여섯번째) 광주일보 편집국장·이의준(왼쪽 다섯번째)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연호 ㈜혁신 대표, 고용배 ㈜엠에스 대표(이하 종합 우수부문), 현기환 ㈜매크로드 대표, 윤영중 ㈜키스코이에스 대표(이하 청년창업부문), 이재수 ㈜골드텔 대표(수출 우수부문), 김영태 ㈜우주종합건설 대표(고용 우수부문), 김용문 (사)화순사랑 대표(매출 우수부문).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00% 유럽서 수입했던 마리나 시공 기술 국산화

(주)혁신

해남에 본사를 둔 ㈜혁신은 마리나 시설 제품 제조 및 시공능력을 국산기술화 한 우수 중소기업이다. 기존의 마리나 시설은 유럽에서 100% 수입을 통해 국내에 설치하는 상황이었지만 최연호(43) 대표는 우수한 인력과 비용을 과감하게 투자해 제품 국산화에 성공했다. 유럽환경에 맞는 푼툰(부력체) 규격을 국내환경에 맞게 변경하고 깨지거나 벌어지는 푼툰재질의 문제점을 극복해 환경 측면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냈다. 또 파도나 풍랑의 흔들림을 줄이는 구조적 한계 극복도 성공했다.

독자기술 개발로 ㈜혁신은 품질과 가격, 안전, 기능 등 모든 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마리나 시설 업체로 거듭났다. ㈜혁신은 올해 지난해 대비 두배가 넘는 직원을 채용했고, 연매출도 두 배 가까이 성장시켰다.

PVC하수도관 등 제조 5년간 매출 7배 '스타기업'

(주)엠에스

여수의 ㈜엠에스는 PE하수도관 및 PVC하수도관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8년부터 5년 사이 연매출만 7배 가까이 성장시킨 우수중소기업이다. 고용배(51) 대표는 지난 2008년 취임한 뒤 7억원 이상의 신규설비 투자와 영업력 강화 등 기업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수단체표준인증과 ISO인증을 바탕으로 제품 성능 올리기에 주력한 결과, 파이프 관련 특허출원만 3건에 달하는 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으로 거듭났다.

2009년에는 Q마크를 획득하고, 2010년에는 전남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됐으며 매년 채용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연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여수시의 스타기업으로 발돋움했다.

1인 창조기업으로 출발 설립 2년만에 연매출 7억

매크로드(주)

나주의 매크로드㈜는 보도블럭이나 갓길의 잡초억제에 쓰이는 방초시트와 고정핀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현기환(41) 대표는 동신대 창업보육센터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사업을 시작, 벤처기업 인증과 함께 특허등록 3건, 특허출원 2건, 디자인출원 1건의 성과를 바탕으로 매크로드㈜를 우수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함평농공단지에 공장부지 분양을 받아 세운 공장은 전남도 및 함평군이 투자협약을 체결, 높은 성장가능성을 보여줬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이 업체는 1인 창조기업이지만 설립 2년 만에 연매출액이 7억원을 넘어서며 창업 초와 비교해 250배의 매출 증가를 이뤘다. 우수한 기술력을 중심으로 인재 채용이 계속되면 나주 대표 벤처기업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스마트폰 생활형 앱 개발 성장잠재력 무한한 IT업체

키스코이에스(주)

광주의 키스코이에스㈜는 '뭐야 이 번호'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IT업체다. 기업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스팸·보이스피싱 알리미로 쓰이는 이 앱은 올 11월 종합 다운로드 수 370만개를 돌파하며 생활 앱 분야 베스트 앱으로 선정됐다. 키스코이에스㈜는 자바(Java)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뒤 2009년 창업대회 우수상, 2010년 중소기업청장 표창, 2012년 유망중소기업 및 우수기업 인증 등을 받았다.

윤영중(41) 대표는 2009년 조선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뒤 인재 채용에도 힘써 2명의 직원을 현재 11명까지 불렸다. 그동안 교육콘텐츠 제작툴인 '에프엑스노트'(Fx-Note) 등을 개발했다. 매출도 창업 4년 만에 4배 이상 성장시켰고, 매출액의 80% 가량이 수출실적일 정도로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광커넥터 국내 최초 개발 수입 대체…20개국 수출

(주)골드텔

광주에 본사와 공장을 둔 ㈜골드텔은 지난 2000년 광통신부품과 유선통신기기 전문 제조업체로 출발했다. 이재수(48) 대표는 정보통신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지식과 정보, 기술개발 분야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댁내광가입자(FTTH) 광커넥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수입제품을 대체했으며 산업체 보급 및 해외 2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 국내 최초로 광 섬유자동화공정의 국내원천기술을 상용화해 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 결과 이 대표는 광통신분야 최초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됐으며 현재는 광기술 보급에 앞장서는 산업현장교수로 활동중이다. 올해 ㈜골드텔의 연매출액은 2008년과 비교 3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6배를 넘어섰다. 여성친화협약을 만드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해외공사 수주 급속 성장 작년 일용직 등 9300명 고용

우주종합건설(주)

여수의 우주종합건설㈜은 지난 1989년 창업한 우주건업을 모태로 2001년 종합건설업체로 재탄생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기반을 둔 이 업체는 꾸준한 매출 성장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태(48) 대표는 고용에 큰 관심을 기울여 2011년 정규직과 일용직을 포함 46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2012년에는 9300여명을 고용했다. 현재도 해외현장을 포함, 하루 평균 65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2012년 말레이시아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공사 수주에도 적극 노력, 올해 우즈베키스탄에서 1818만 달러의 토목·건축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그동안 매출액도 급격히 성장해 지난해에는 2001년의 60배에 다다르는 연매출을 기록했다.

봉제제품 만든 사회적기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여

(사)화순사랑

화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사)화순사랑은 전남예비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일자리를 위한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업체다. 주로 수의와 환자복, 의류, 침구 등 봉제제품을 만드는 (사)화순사랑은 전남도 장애인고용관리공장과 함께 장애인 표준화사업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김용문(47) 대표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정 무료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고, 독거노인에게 무료 수의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 화순사랑을 이끌고 있다.

봉제공장 설립 당시 1명이었던 근로자는 최근 17명까지 늘어났으며 취약계층 고용률이 73%에 이를 정도다. 연매출도 올해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성장하는 등 고용 및 기업성장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공기관 총부채 565조…나라 빚보다 120조 많아

MB정부 5년간 2.2배 늘어…9개 기관은 '부실' 상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내 공공기관의 총부채가 565조8000억원으로 국가채무(446조원)보다 무려 120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B정부 5년간 LH,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급증해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중 9개 공공기관은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위험이 커져 사실상 '부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용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한데다 해당 기관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방만경영을 한 결과다. 정부는 더이상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부채·방만경영 해소가 부진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과 허경선 부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을 발제했다.

이들은 부채규모, 부채증가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이 부채를 자연발생시키는 12개 공공기관을 선정, 부채정보를 집중분석했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이들 기관은 2007년 MB정부 출범 때만 해도 부채규모가 186조9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매년 30조~50조원씩 부채가 증가해 2012년에는 412조3000억원으로 빚이 불어났다. 5년간 증가 폭만 225.5%다. 295개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도 2007년 249조2000억원에서 2012년 493조3000억원으로 244.2%로 커졌다. 하지만 12개 기관의 부채는 증가속도가 빠른 탓에 공공기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92.3%로 확대했다. 5년간 부채증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LH로 71조2000억이나 됐다.

이날 안전행정부가 밝힌 전국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등 388개 지방공기업의 2012년 부채는 72조5000억이나 돼 지방공기업 관리 역시 비상이 걸린 상태다.

문제는 부채의 질이다. 매년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가 공공기관 전체 빚의 75%가 넘는 305조2000억원이다. 5년간 169조200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정부에는 공공부문 부채를 종합관리하는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원가검증을 통한 적정한 공공요금 산정, 과잉투자 및 방만한 사업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주무부처 책임강화 등을 제언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93.45 (+6.93)	497.72 (-4.51)	2.99% (+0.01)	1052.20원 (-0.80)